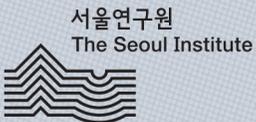


2015-CR-04-16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5-16

## 사회적 학습 관점에서 본 양천구 마을활동 분석

주형선



**사회적 학습 관점에서 본  
양천구 마을활동 분석**

\ 연구책임

주형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연구원

\ 연구진

최진웅 양천구마을생태계지원단 단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 집단적인 의사소통·상호작용 방식으로 마을활동, 실천적 지식·공동기치 창출

## 마을활동, 공동 필요 함께 해결하는 과정... 공동체 학습 수반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2011년 ‘마을공동체풀뿌리활동가 TFF’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과 각 지역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을 설립하여 시민들의 마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일련의 작업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자료를 보면, 마을활동은 주민들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함께 ‘성장’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때 ‘학습’은 마을활동의 내재된 요소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2013년 발행된 서울시마을공동체 백서의 서문은 ‘지역적 회복력’ 분야의 용어를 빌려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을공동체는 ‘지역경제 역량’과 ‘인구 사회적 역량’, ‘커뮤니티의 학습과 연결역량’을 키워가는 활동이며 ‘내’ 개인이 아닌 ‘우리’의 내공과 소통력, 창의력, 지혜와 보살핌, 그리고 공동작업의 능력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고 ‘성과’ 못지않게 ‘학습’을 중시합니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3: 8).”

즉, 마을활동은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동의 필요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며, 이 속에서 내가 아닌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 차원의 학습이 수반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사회적 학습, 자연자원 관리 등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서 성장

---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자원 관리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학습에 대한 논의는 마을활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복잡성을 담보하는 쟁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전문가가 일련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주민들 대상의 일방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쟁점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구성해 가는 집단 수준의 학습, 즉 사회적 학습이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Muro and Jeffrey(2008)는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분석하여 사회적 학습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적 학습은 자연자원 관리에 참여한 구성원 간의 집단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학습은 참여자들이 서로의 목적과 관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내재된 가치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적 학습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형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집단적 행동이 나타난다.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요소는 소규모의 집단 작업, 동등한 분위기, 지속적인 만남,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열린 의사소통, 다양한 참여, 제한되지 않은 사고,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지식 등이었다.

이 모델에서 사회적 학습의 결과물로는 실질적 지식, 기술적 및 사회적 기능 습득, 인지나 태도 변화, 신뢰 형성 등이 제시되었다.

## 양천구에서 진행 중인 마을활동 사례의 사회적 학습 특성 조사 분석

사회적 학습은 Bandura(1977)가 말한 것처럼 개인 상호 간의 학습으로 정의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는 집단적 과정으로 본다(Muro and Jeffrey, 2008; Wals and Leij, 2009; Willemsen et al., 2009).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동의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활동에는 집단적 수준의 사회적 학습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마을활동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은 마을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집단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과정,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습의 내용과 촉진 요소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학습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진은 처음 연구를 설계할 때는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마을활동을 분석한다'는 연구 취지를 고려할 때, 양천구에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험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초점을 변경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마을활동 과정을 조사하는 것과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마을활동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의 두 가지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서울시 및 양천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마을활동을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 모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양천구에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가운데 연구 취지에 동의하고 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마을활동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사례 가운데에는 지원사업으로 모임이 구성되고 활동을 지속한 경우도 있고, 일련의 마을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가’ 아파트 공동체, ‘스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 등 세 그룹의 6명이었다.

면담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연구참여자별로 1회씩 진행하였다.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2차 면담을 시행하여 총 8번의 면담이 진행되었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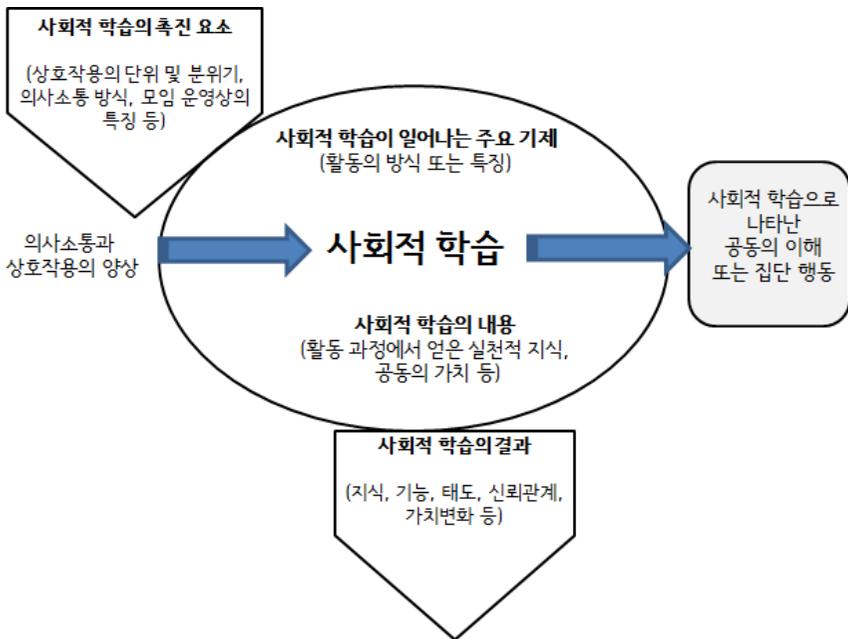
연구진은 면담을 마친 후에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모두 전사한 다음, 전사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면담 내용에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는 ‘코딩(coding)(조용환, 1999)’ 작업을 수행하였다. 코딩 결과를 보면서 면담내용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고자 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별 면담 현황

구분	연구 참여자	면담일시 및 시간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A 40대 여(축구모임 회원)	2015년 11월 16일 19:00~20:40
		2016년 1월 16일 13:30~15:30
	B 50대 남(축구모임 회원, 코치)	2016년 1월 23일 13:30~15:30
‘가’ 아파트 공동체	C 40대 남(온라인 지역카페지기, 아파트축제모임 회장)	2016년 1월 16일 16:00~18:00
	D 40대 남(아파트축제모임 회원, 마을합창단 단장)	2015년 11월 21일 15:00~17:00 2016년 1월 30일 16:00~17:40
스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	E 70대 남(주민협의체 참여주민)	2016년 1월 23일 10:00~12:30
	F 40대 여(주민협의체 참여주민, 지역재생활동가)	2016년 1월 29일 21:00~24:20

## 모임 구성원 간 유대관계·마을사랑이 마을활동 지속 원동력

이 연구에서는 Muro and Jeffrey(2008)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 모델을 참고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마을활동 분석 시 사용할 사회적 학습 모델을 고안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 분석틀

분석틀을 토대로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마을활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을활동 과정에서의 사회적 학습은 집단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사례에 따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양상은 ‘부모들 사이, 부모들과 아이들 사이’, ‘소모임 안에서, 소모임 사이, 소모임과 아파트 주민

사이’, ‘주민과 전문가, 활동가 사이’ 등으로 다양했다.

마을활동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을 Muro and Jeffrey(2008)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의 내용이였다. 자연자원 관리에는 지역주민, 정부, 기업, 생태계 또는 생물 등 관련된 이해당사자만큼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서의 사회적 학습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관점을 알고, 상호 간의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활동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과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은 실행과 반성의 과정에서 형성된 ‘모임만의 새로운 추구방식’, ‘마을리더로서 공동에서의 마을활동 방향’ 등과 같은 실천적 지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이들이 함께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무엇인가를 함께 할 사람이 있는 동네’처럼 모임 또는 마을이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로 표출된다.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요소에서도 두 모델 사이의 차이가 있었다. ‘지속적인 만남과 열린 의사소통 체계’는 자연자원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책임감, 친밀함, 마을에 대한 애정’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들은 마을활동에서만 발견되었다.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 비해 마을활동에서 모임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와 마을에 대한 애정 등은 활동 지속의 원동력이자 사회적 학습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결과물은 자연자원 관리 분야의 사회적 학습 모델에 제시된 실질적 지식, 기술적 기능, 사회적 기능, 인지 및 태도 변화, 신뢰 관계 등과 유사했다. 즉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기술, 정산 방법’, ‘마을축제 기획 능력’, ‘마을활동 기획 능력’ 등 마을활동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지식과 기능이 사회적 학습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 ‘부모 사이의,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신뢰’ 등과 같은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도 제시되었다.

자연자원 관리 분야의 사회적 학습 모델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된 집단적 행동은 이 연구 사례에서는 모임 또는 마을활동의 지속으로 구현되었다. 마을활동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사회적 학습은 지속적인 마을활동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표 2]는 연구참여자들의 마을활동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2] 연구참여자의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내용과 요소

구분	사회적 학습		
	내용	촉진 요소	결과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방법</li> <li>• 아이들이 함께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li> <li>• 모임만의 새로운 축구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라는 과업 공유</li> <li>• 친밀감, 신뢰관계</li> <li>• 수평적인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기술, 정산 방법</li> <li>•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li> <li>• 사회에 대한 기여감</li> <li>• 부모 사이의,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신뢰</li> </ul>
'가' 아파트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물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li> <li>• 무엇인가를 함께 할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생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밀한 분위기</li> <li>• 지속적인 만남</li> <li>•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율적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소모임</li> <li>• 소모임 간의 네트워크</li> <li>• 마을축제 기획 능력</li> <li>• 마을에 대한 공동의 기억</li> </ul>
스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동 주민들의 마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생각 이해</li> <li>• 리더로서 스동에서의 마을활동 방향 세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에서 쌓아온 인맥과 신뢰</li> <li>• 마을에 대한 애정</li> <li>• 마을일에 대한 책임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활동 기획능력</li> <li>• 공동이용시설 운영 프로그램</li> <li>• 마을사업 아이템</li> </ul>

# 목차

01   서론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4
02   선행연구 분석	10
1_사회적 학습 개념의 발전과정 및 특징	10
2_사회적 학습 모델	12
03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22
1_서울시와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22
2_양천구 마을모임 현황	26
04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본 마을활동의 의미	32
1_연구참여자의 마을활동 이야기	32
2_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본 마을활동의 의미	50
3_소결	63

05   결론 및 정책제언	68
1_결론	68
2_정책제언	70
참고문헌	73

**표**

[표 1-1] 1차 연구참여자 선정	7
[표 1-2] 2차 연구참여자 선정	8
[표 1-3] 연구참여자별 면담 현황	8
[표 3-1] 2015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23
[표 3-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24
[표 3-3]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의 목표와 사업내용	25
[표 3-4] 2015년 양천구 마을모임 현황	26
[표 3-5] 2015년 서울시/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모임의 단계별 비율	27
[표 3-6] [그림 3-1]에 나타난 번호 구분	28
[표 3-7] 2015년 양천구 마을모임 참여자의 연령대별 현황	30
[표 3-8] 2015년 양천구 마을모임 참여자의 성별 현황	30
[표 4-1] 연구참여자의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	64

## 그림

---

[그림 2-1] 자연자원 관리 분야의 사회적 학습 모델	14
[그림 2-2] 에콰도르 산악지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	17
[그림 2-3]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학습 분석틀	19
[그림 3-1] 양천구 마을모임의 지역적 분포도	28
[그림 4-1]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모임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	53
[그림 4-2] ‘가’ 아파트 공동체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다양한 단위	55
[그림 4-3] ‘가’ 아파트 공동체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	58
[그림 4-4] 스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 활동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	62

# 01

---

## 서론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 01 | 서론

### 1\_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정의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는 시민 참여이다. 서울시는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 소통소,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보공개 등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역시 이런 시민 참여 행정의 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을을 누군가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그 자체로 보면, 마을활동에서 ‘시민 참여’는 새로운 행정 기법이라기보다 내재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관 주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되고 전문가가 제시한 마을 발전의 청사진에 주민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 또는 반성의 의미라면 ‘주민 주도’라는 표현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2011년 ‘마을공동체풀뿌리활동가 TFF’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과 각 지역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을 설립하여 시민들의 마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일련의 작업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시민들이 마을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을 마을활동의 내재된 요소로 본다.

마을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 마을은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공리하며 함께 협동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망(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8)”으로 여겨진다. 마을활동은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서로의 필요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2013년 발행된 서울시마을공동체 백서의 서문은 ‘지역적 회복력’ 분야의 용어를 빌려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을공동체는 ‘지역경제 역량’과 ‘인구 사회적 역량’, ‘커뮤니티의 학습과 연결역량’을 키워가는 활동이며 ‘내’ 개인이 아닌 ‘우리’의 내공과 소통력, 창의력, 지혜와 보살핌, 그리고 공동작업의 능력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고 ‘성과’ 못지않게 ‘학습’을 중시합니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3: 8).*

마을활동은 내가 아닌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 차원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학습에 대한 논의는 마을활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복잡성을 담보하는 쟁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전문가가 일련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주민들 대상의 일방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쟁점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구성해 가는 집단 수준의 학습, 즉 사회적 학습이 더 의미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사회적 학습은 Bandura(1977)가 말한 것처럼 개인 상호 간의 학습으로 정의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는 집단적 과정으로 본다(Muro and Jeffrey, 2008; Wals and Leij, 2009; Willemsen et al., 2009).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동의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활동에는 집단적 수준의 사회적 학

습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마을활동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은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습의 내용과 촉진 요소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학습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진이 처음 연구를 설계할 때는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마을활동을 분석한다’는 연구 취지를 고려할 때, 양천구에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험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연구 초점을 변경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연구 사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양천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천구의 주민모임이나 단체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는 양천구에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을활동 경험을 조사하였다. 주민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 주요한 활동 내용, 활동과정에서 느낀 점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는 양천구 주민들의 마을활동 과정을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적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학습 모델을 도출하고 이

를 통해 마을활동 과정에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학습의 성과물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 2)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연구진은 연구참여자들의 마을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 및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을 알 수 있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마을활동을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 모델을 도출하였다.

### 나. 면담조사

연구진은 양천구에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가운데 연구 취지에 동의하고 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마을활동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사례 가운데에는 지원사업으로 모임이 구성되고 활동을 지속한 경우도 있고, 일련의 마을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 모두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고 연구진 중 한 명이 ‘마을생태계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마을활동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익숙함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그 사람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되 ‘낮설게’ 보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맨 처음 선정할 때의 기준은 마을활동 경험 정도와 역할이었다.

마을활동 경험이 짧으면 그 경험의 특징을 자세히 조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려고 하였다. 또한 마을활동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마을사업지기, 마을리더, 마을지원활동가 등 마을활동의 역할별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 1-1]과 같이 연구참여자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초기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마을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경험보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임이나 공동체 차원의 경험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소규모 모임이나 마을 차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곳에서 연구사례를 먼저 정하고 이들 사례별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양천구에는 부모커뮤니티와 같은 소규모 모임에서 아파트나 동 단위의 축제를 여는 마을 단위의 활동, 도시재생 사업에 마을활동이 결합된 사례 등 규모와 양상이 다른 마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천구의 이러한 마을활동 양상을 고려하여 부모커뮤니티, 아파트 공동체,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 가운데 활동을 지속해온 곳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가’ 아파트 공동체, ‘스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 등 세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례별로 마을활동을 지속해온 주민 가운데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모임에서는 처음 모임을 제안하여 4년 넘게 활동을 지속해온 주민 A와 코치로서 아이들과 축구를 함께 해 온 주민 B가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가’ 아파트 공동체 사례에서는 포털 사이트에 ‘지역카페’를 만들고 이후에는 마을축제 모임을 꾸려온 주민 C와 마을축제 모임을 하면서 마을합창단을 만든 주민 D가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스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에서는 협의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참여한 주민 E와 지역 주민이자 지역재생활동가로서 협의체에 참여한 주민 F가 연구참여자로 선

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는 연구사례별로 2명씩, 6명이 선정되었는데 남성이 4명, 여성이 2명이었다.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고 50대와 70대도 1명씩 있었다. 양천구 전체 마을활동 참여자 현황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데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성이 더 많다. 세 연구사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주민 가운데 남성이 많았고, ‘가’ 아파트 공동체 사례에서는 여성 주민의 면담 참여가 어려워서 나타난 결과이다. 연구사례별 연구참여자 현황은 [표 1-2]와 같다.

면담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연구참여자별로 1회씩 진행하였다.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2차 면담을 시행하여 총 8번의 면담이 진행되었다([표 1-3] 참조).

연구진은 면담을 마친 후에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모두 전사한 다음, 전사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면담 내용에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는 ‘코딩(coding)(조용환, 1999)’ 작업을 수행하였다. 코딩 결과를 보면서 면담내용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고자 하였다.

**[표 1-1]** 1차 연구참여자 선정

구분	연구 참여자
마을사업지기 2명 (마을활동 1~2년차)	40대 남(마을합창단 단장) 40대 여(주부모임 회원)
마을 리더 2명 (마을활동 3년차 이상 리더 그룹)	50대 여(청소년 공간 운영) 40대 여(학부모 모임 회원)
마을지원활동가 2명 (마을생태계지원단의 상담과 컨설팅, 교육 담당)	50대 여(마을지원활동가) 30대 여(마을지원활동가)

**[표 1-2] 2차 연구참여자 선정**

구분	연구 참여자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40대 여(축구모임 회원) 50대 남(축구모임 회원, 코치)
'가' 아파트 공동체	40대 남(온라인 지역카페지기, 아파트축제모임 회장) 40대 남(아파트축제모임 회원, 마을합창단 단장)
사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	70대 남(주민협의체 참여 주민) 40대 여(주민협의체 참여 주민, 지역재생활동가)

**[표 1-3] 연구참여자별 면담 현황**

구분	연구 참여자	면담일시 및 시간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A 40대 여(축구모임 회원)	2015년 11월 16일 19:00~20:40
		2016년 1월 16일 13:30~15:30
'가' 아파트 공동체	B 50대 남(축구모임 회원)	2016년 1월 23일 13:30~15:30
	C 40대 남(온라인 지역카페지기, 아파트축제모임 회장)	2016년 1월 16일 16:00~18:00
사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	D 40대 남(아파트축제모임 회원, 마을합창단 단장)	2015년 11월 21일 15:00~17:00
		2016년 1월 30일 16:00~17:40
사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	E 70대 남(주민협의체 참여주민)	2016년 1월 23일 10:00~12:30
	F 40대 여(주민협의체 참여주민, 지역재생활동가)	2016년 1월 29일 21:00~24:20

# 02

---

## 선행연구 분석

1\_사회적 학습 개념의 발전과정 및 특징

2\_사회적 학습 모델

## 02 | 선행연구 분석

### 1\_사회적 학습 개념의 발전과정 및 특징

Muro and Jeffrey(2008)는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에 대한 논의의 발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을 정의하고 발전시킨 사람은 Miller and Dollard(1941)이다. 이들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인지적 표상으로 전환하는데, 관찰한 것이 이익이나 보상과 연결되면 행동을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학습을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통합적으로 연구했다고 평가받는 Bandura는 타자의 행동과 태도, 정서적 반응을 관찰하고 모델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977). Bandura(1986)는 그 이전의 사회적 학습 이론과 차별화하고 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 인지 이론’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이 이론은 인간 행동을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 영향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현실은 환경과 개인 인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되는데 이는 피드백과 호혜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인적자원 및 지식 관리 영역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학습을 심리적 수준에서 집단과 사회조직이 상호작용과 협동을 통해 어떻게 학습하는가로 확장시켰다(Lave and Wenger, 1991)고 평가받는다.

Lave and Wenger(1991)는 상황학습이론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강조했다. 이들은 학습을 사회적 참여로 정의하면서 이것이 세계에 대한 공유된 지식과 이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는 특정 활동에 대한 국지적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는 더 포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는 우리가 하는 것을 모양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

는 집과 일터, 지역사회에서 실천 공동체에 속해있다.

사회적 학습 이론은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환경과 함께 어떻게 배우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적 학습 이론은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지만 이후 연구자들은 학습을 인지적 과정으로 묘사한다. 상황학습 및 인지에 대한 최근 이론들은 지식의 생성과정 및 태도와 신념의 변화를 강조한다. Muro and Jeffrey(2008)는 이들 논의가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공유된 지식의 생성을 강조한다고 평했다.

그런데 Parson and Clark(1995)은 사회적 학습이라는 용어가 모든 연구자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사회적 학습을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들의 학습과 사회적 집단의 학습으로 구분하였다.

*자신이 조사하는 현실을 사회적 학습으로 명명하는 연구자들이 공통의 이론적 관점과 공통의 언어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개인들과 집단들, 형식적 조직, 전문적 공동체, 사회 전체를 다룬다. 이들에게 학습과 사회적 이론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사람에게 사회적 학습은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들의 학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집단의 학습이라는 것이다(Parson and Clark, 1995: 425).*

사회적 학습은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호 간의 학습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기도 하지만, Wals and Leij(2009)처럼 학습과 학습자들의 공동체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들은 사회적 학습을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 안에서 다양한 이해와 규범, 가치가 만날 때 일어나는 학습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학습에서 초

점은 사전에 결정될 수 있는 어떤 것 즉,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다음과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어떻게 배우나,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나.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적 규범과 집단적 사고, 개인적 편견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뛰어넘나, 새로운 자연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모양지우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어떤 지식과 기능이 필요한가, 사회적 학습이 어떻게 이 세계에서 사람들 나름의 지식, 기능, 대안적 관점을 발전시키나, 위의 지식, 기능, 대안적 관점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생긴 불협화음이 어떻게 학습과 창조성, 변화에 추동력이 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대안적 삶의 방식과 가치 부여에 더 민감해지고 이들로부터 배우는가, 사회적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은 어떻게 만드는가(Wals and Leij, 2009: 19).*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마을활동 과정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학습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을살이에 대한 공동의 지식이나 관점이 형성되는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2\_ 사회적 학습 모델

사회적 학습은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Keen 외(2005)는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접근을 익숙하게 하고 참여적 학습 환경과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플랫폼 또는 공동 학습의 장에서 개인은 집합적으로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배우며 집단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Keen 외(2005) 등은 사회적 학습을 서로 다

른 개인과 집단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면서 일어나는 집단적 행동과 반성이라고 보았다.

Muro and Jeffrey(2008)는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그 핵심은 다수의 사회적 결과물이나 새로운 기능, 지식이 생겨날 수 있는 집단적이고 의사소통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뢰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적, 사회적 기능이 생겨나 이것이 시스템 또는 해결할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 집단적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Muro and Jeffrey(2008)의 분석에서 사회적 학습은 Bandura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개인 상호 간의 학습이라기보다 집단적 과정이다. 또한 이해를 공유하고, 공유된 이해에 기초해서 공동의 행동을 취하는 일련의 사람들의 행동 즉, 사회적, 집단적 행동이 중요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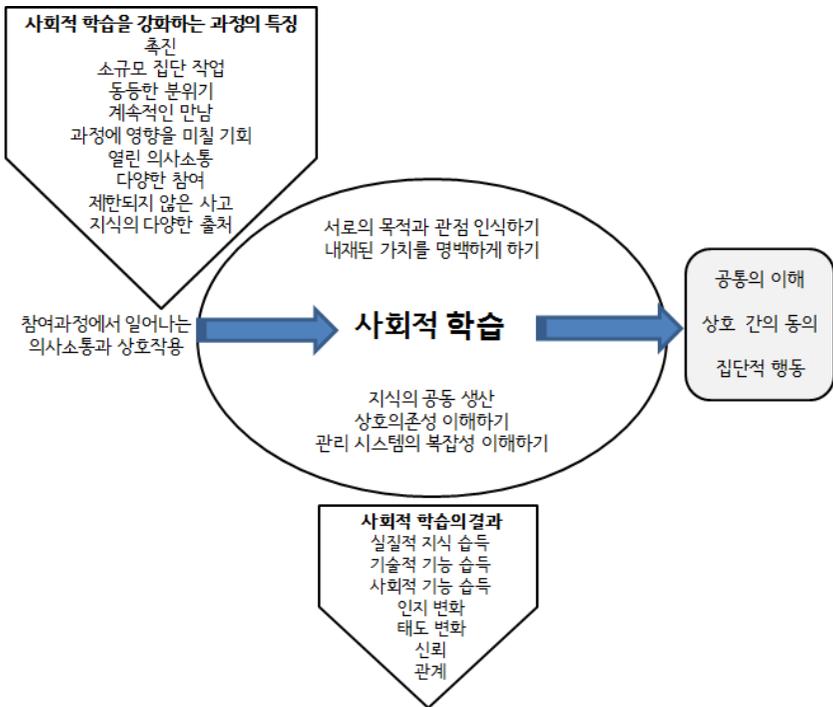
[그림 2-1]은 Muro and Jeffrey(2008)가 자연자원 관리 분야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사회적 학습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사회적 학습은 자연자원 관리에 참여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사회적 학습은 참여자들이 서로의 목적과 관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내재된 가치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적 학습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형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집단적 행동이 나타난다.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요소는 소규모의 집단 작업, 동등한 분위기, 지속적인 만남,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열린 의사소통, 다양한 참여, 제한되지 않은 사고,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지식 등이었다. 사회적 학습의 결과물로는 실질적 지식 획득, 기술적 및 사회적 기능 습득, 인지나 태도 변화, 신뢰 형성

등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학습은 자연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하나의 고정된 상태라기보다 더 지속가능한 상태로의 변화 또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Wals and Leij(2009: 17-18)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이를 위해서는 우리 세계가 계속되는 변화 속에,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불확정성 속에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쟁점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논쟁을 다룰 때,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료: Muro, M. and Jeffrey, P., 2008, p. 332

[그림 2-1] 자연자원 관리 분야의 사회적 학습 모델

책임과 권한, 자율성은 다르다. 책임 있는 방식으로 조직하고 소비하고 생산하는 방법과 관련된 갈등을 다룰 때, 학습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시점과 이해, 가치, 권력, 불평등이 가득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이들은 사회적 학습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 안에서 다양한 이해와 규범, 가치가 만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때 사회적 학습은 개인 수준, 집단 및 조직의 수준, 행위자들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네트워크 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Willemsen et al.(2009)과 Mochizuki(2009)는 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양상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Willemsen et al.(2009)은 에콰도르 산악지대의 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 과정을 조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NGO단체인 World Neighbours와 SwissAid, IIRR(International Institute for Rural Reconstruction)이 에콰도르의 산악지대 Chimborazo, Bolívar, Cotopaxi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작 작물의 종다양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역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활동단체(LAA's; Local Action Agencies)가 결합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McKnight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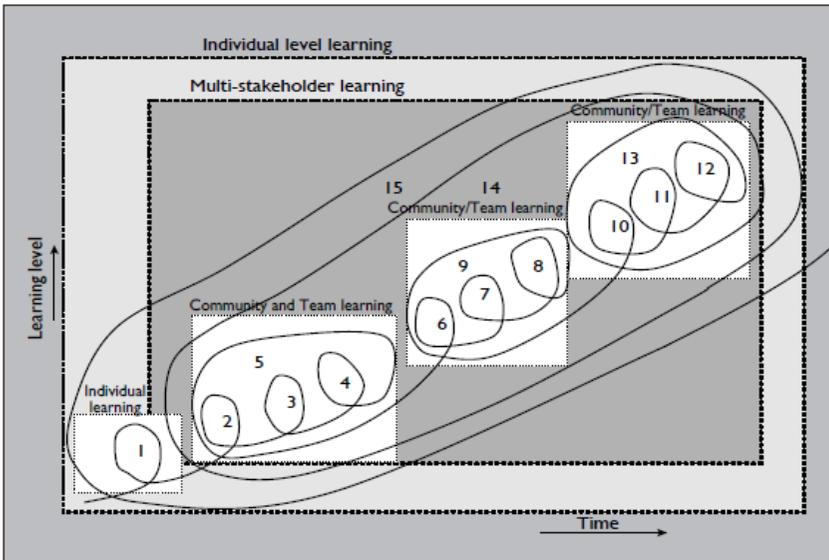
Willemsen et al.(2009)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이 다양한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종자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에 따라 다른 참여 형태, 참여 형식의 변화, 학습의 여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종자를 둘러싼 학습을 지역사회, 촉진팀, NGO, 그리고 연구자 개인 등 네 가지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수준별 학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 지역에서 발생하는 씨앗 관련 문제 인식
- 촉진팀(facilitation team) : 워크숍을 조직하고 촉진하는 실질적인 방법
- NGO: 다른 행위자들과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법
- 개인(연구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 개인 수준의 학습

또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15개의 학습 사이클을 제시하였다. 총체적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이 15개의 학습사이클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그림 2-2] 참조).

- ① 1주기 : 참여자(저자)의 개인적 학습 주기임. 프로젝트 초기 NGO단체와 지역활동단체(LAA's)를 만나고 촉진팀을 꾸리며 지역에 대해 배움.
- ② 2, 3, 4, 5주기 : Chimborazo 지역에서의 학습 주기임. 2, 3, 4주기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학습이며, 5주기는 이를 포괄하는 종합 워크숍임.
- ③ 6, 7, 8, 9주기 : Bolívar 지역에서의 학습 주기임. 6, 7, 8주기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학습이며, 9주기는 이를 포괄하는 종합 워크숍임.
- ④ 10, 11, 12, 13주기 : Cotopaxi 지역에서의 학습 주기임. 10, 11, 12주기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학습이며, 13주기는 이를 포괄하는 종합 워크숍임.
- ⑤ 14주기 : NGO단체와 지역활동단체(LAA's), 참여한 커뮤니티가 함께한 종합적 'umbrella' 워크숍임.
- ⑥ 15주기 : 참여자(저자)가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주기임.

[그림 2-2]는 종자를 둘러싼 개인, 공동체, 다중 이해관계자 수준에서 일어난 15단계의 사회적 학습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Willemsen et al.(2009)이 제시한 사회적 학습 모델은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을 그대로 제시한 측면도 있지만, 개인과 지역사회, 여러 이해 당사자 그룹 등 여러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학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 Willemsen et al., 2009, p. 471

**[그림 2-2]** 에콰도르 산악지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

Mochizuki(2009)는 일본 미야기현 타지리정에 있는 가부쿠리누마늪을 찾는 겨울철새들과 주변 농부들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 및 이것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가부쿠리누마늪은 150ha에 이르는 담수호인데 일본을 찾는 쇠기러기의 90%가 이곳과 이즈누마-우치누마에서 겨울을 난다. 그런데 1996년 가부쿠리누마늪의 준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본기러기 보호협회(JAWGP)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 인근 시라토리구의 쌀 생

산 농가들이 농경지를 반환해야 하는 어려움에 닥친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일본기러기보호협회는 농부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가부쿠리누마늪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통해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준설 대신 홍수조절지와 자연습지로서 가부쿠리누마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겨울에 경운을 하지 않는 겨울무논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일시적이지만 습지를 늘리고 지역의 농업을 살리는 고부가 가치의 쌀 생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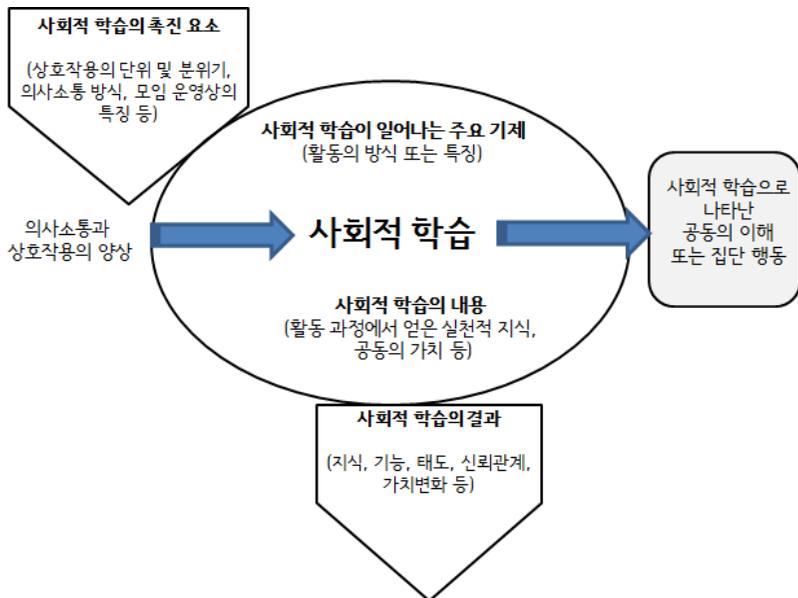
Mochizuki(2009)는 타지리에서 농부와 지역사회, 겨울 철새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사회적 학습 과정으로 보았으며 성공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지방정부와 일본기러기보호협회의 노력이었다.

우선, 지방정부는 시라토리구에서 농지를 반환하여 자연습지로의 변화에 동의한 농가에 대한 공식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겨울무논을 활용하여 타지리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고 지역 농업을 활성화시켰다. 다음으로 일본기러기보호협회는 겨울철새 보호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뿐만 아니라 농부의 안녕을 위한 사회·경제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겨울무논이라는 창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확산시켰다. 이 외에도 일본기러기보호협회는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겨울무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일본의 전통 농업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겨울무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나아가 일본기러기보호협회와 농부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Muro and Jeffrey(2008)는 사회적 학습의 과정 및 결과물, 사회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Willemsen et al.(2009)은 개인과 공동체, 다중 이해자 그룹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학

습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Mochizuki(2009)는 지역사회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비전을 구축한 과정 및 이 과정에서 지역 NGO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Muro and Jeffrey(2008)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 모델을 토대로 연구참여자들의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을 분석할 모델을 도출하였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 분석틀

# 03

---

##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 1\_서울시와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 2\_양천구 마을모임 현황

## 03 |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 1\_서울시와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 1) 지원사업의 형태와 종류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함께 마을도 형성된다. 마을의 형성 정도에 따라 마을을 분류할 수 있는데 마을의 분류는 마을의 성장 정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서울특별시, 2012).

서울시와 양천구는 각각 마을의 형성 단계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로 공모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 초기의 주민모임을 형성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발견하기 위한 ‘씨앗기 단계’, 이렇게 형성된 모임이 마을의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새싹기 단계’, 이렇게 형성된 다양한 마을 모임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장기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마을활동은 생활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지원 분야도 다양하다. 영역을 가리지 않고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하는 분야가 기본적인 형태라면 영역별로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 서울시는 ‘씨앗기 단계’ 사업부터 ‘성장기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와 특화된 주제까지 널리 지원하고 양천구는 주로 ‘씨앗기’ 단계의 사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사업은 매해 형태와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2015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2015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단계	공모사업명	지원내용	예산지원
씨앗기	양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양천구 초기모임 형성 지원	양천구
	부모커뮤니티	부모들 간의 모임지원, 양육문제 모색	서울시
	이웃만들기	주민주체 발굴, 초기 모임 형성	서울시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주민/교사 모임지원)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학교 교사 모임 형성	서울시
새싹기	공동주택 활성화(아파트)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유사업	양천구
	에너지 자립 마을	마을단위의 에너지 절약활동과 에너지 효율 활성화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품앗이 돌봄, 직장/전업주부 육아활동	서울시
	다문화 마을공동체	공존하는 다문화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마을에 기반을 둔 주민들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서울시
	서울시 우리마을지원사업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	서울시
	서울시 우리마을지원사업 (공간지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관련 마을활동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활동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주민/교사 협동형)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학교 교사 연계 활동	서울시
성장기	주민모임 간 연계 및 확장 지원	생활권 내 주민모임 간의 교류 활성화	서울시
	주민주도형 동네단위 마을계획 수립	생활권 내 주민모임 간의 마을계획 수립	서울시 마을센터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	생활권 내 학교와 주민모임 간의 마을학교 계획 수립과 실행	서울시 마을 센터
기타	청년 마을살이 발전소 등	청년들의 마을활동 자립모델 발굴	서울시

자료: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내부자료

## 2)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모사업과 같이 주민들에게 자원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과 주민들에게 관계와 자원을 연계해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 있다. 간접 지원 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서울시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12년 8월에 설립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의 심사와 컨설팅, 지역 자원 간의 네트워크 촉진, 현장 정보 제공,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마을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이란 [표 3-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중개자(intermediary agent), 조정자(coordinator), 역량구축자(capability builder) 등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고광용, 2014).

**[표 3-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역할	기능
중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 정책과 절차의 집행자</li> <li>• 정책효과성 제고(모니터링, 피드백)</li> <li>• 정책제안(다양한 정책수요 전달)</li> </ul>
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성</li> <li>• 이해관계자 간 자원의 연결 및 조정</li> </ul>
역량구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수집 및 제공</li> <li>• 조사연구</li> <li>• 구성원들 정보공유와 훈련(인재육성)</li> <li>• 상담 및 컨설팅</li> </ul>

자료: 고광용, 2014

하지만 마을활동은 지역의 생활권 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울 주민들의 마을활동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광역지자체인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들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4년부터 자치구 차원에서 현장에 밀착되어 주민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자치구 단위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민간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이 만들어졌다.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의 목표와 사업내용은 [표 3-3]과 같다.

**[표 3-3]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의 목표와 사업내용**

• 2014년 목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간 실질적 상호 부조적 관계망 형성</li> <li>• 동네 마을넷 기초 마련</li> </ul>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마을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자원 역량 강화</li> <li>• 자치구 마을생태계 중간지원조직 효과 검증</li> </ul>	
• 세부사업내용		
구분	기본사업	자체사업
주민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방(전화) 상담</li> <li>• 찾아가는 마을 강좌(모니터링)</li> <li>• 자치구청 교육 사업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 설명회, 마을기업 기본교육 등</li> </ul>
주민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모임형성 공모사업(심사/컨설팅/평가)</li> <li>• 의제 마을넷(청년, 마을경제 등)</li> <li>• 마을사업지기1) 합동행사</li> <li>• 공모사업 종료자 현황조사</li> <li>• 자치구 마을자원활동가 협업체계 구축</li> <li>• 마을사업지기 촉진 교육</li> <li>• 자치구청 공모사업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마을넷 운영지원</li> <li>• 다양한 의제 마을넷 구성, 자치구 집담회, 활동가 교육 등</li> </ul>
마을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 마을넷 기초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 마을넷 활성화, 마을 계획 수립 등</li> </ul>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의회 간담회, 민관 워크숍 등</li> </ul>

자료: 유창복, 2014

이러한 흐름에 따라 양천구에서도 2014년부터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마을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지원 사항도 관장하여 사업의 현장성과 지역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2. 양천구 마을모임 현황

### 1) 마을모임 현황

양천구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하는 모임은 ‘씨앗기 단계’에서부터 ‘성장기 단계’까지 다양하다. 2015년 기준 현황은 [표 3-4]와 같다.

[표 3-4] 2015년 양천구 마을모임 현황

단계	공모사업명	모임 수
씨앗기	양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29
	부모커뮤니티	9
	이웃만들기	10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주민/교사 모임지원)	1
새싹기	공동주택 활성화(아파트)	6
	공동육아 활성화	1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2
	서울시 우리마을지원사업(활동지원)	2
	서울시 우리마을지원사업(공간지원)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등	1
성장기	주민모임 간 연계 및 확장 지원	2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	1
기타	청년 마을살이 발전소 등	2

자료: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내부자료

1) 서울시와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는 주민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씨앗기 단계’의 모임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단계별 모임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표 3-5] 참조).

**[표 3-5]** 2015년 서울시/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모임의 단계별 비율

	모임 수	비율
씨앗기	49	73.1%
새싹기	13	19.4%
성장기	3	4.5%
기타	2	3.0%
합계	67	100.0%

자료 :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내부자료

## 2) 지역적 분포

양천구 마을모임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마을모임은 주로 목2동 지역과 신정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 신정역 근방의 주택가 등지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북동쪽의 목2동 지역과 남서쪽의 신정동의 아파트 지역은 15분 정도의 생활권 내에 마을모임이 밀집되어 있어 모임을 넘어선 마을이 형성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외에도 양천구의 중앙 부근, 신정역 근방의 신정4동 지역도 마을모임이 밀집되어 있어 마을 형성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에 비해 서쪽의 신월동 지역이나 목동아파트의 1~5단지 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마을모임이 적다. [그림 3-1]은 양천구 지도에서 마을모임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자료: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내부자료

[그림 3-1] 양천구 마을모임의 지역적 분포도

[그림 3-1]에 나타난 번호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을 나타낸다. 모임별 번호의 특성은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그림 3-1]에 나타난 번호 구분

단계	공모사업명	번호
씨앗기	양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1~29
	부모커뮤니티	30~38
	이웃만들기	58~67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주민/교사 모임지원)	48
새싹기	공동주택 활성화(아파트)	40~45
	공동육아 활성화	39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49~50
	서울시 우리마을지원사업(활동지원)	52~53
	서울시 우리마을지원사업(공간지원)	51
	마을미디어 활성화 등	46
성장기	주민모임 간 연계 및 확장 지원	56~57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	47
기타	청년 마을살이 발전소 등	54~55

자료 :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내부자료

[그림 3-1]과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천구 북동쪽의 목2동 지역과 남서쪽의 신정동의 아파트 지역은 ‘씨앗기 단계’에서부터 ‘성장기 단계’까지 다양한 마을모임이 생활권 내에 밀집되어 있다. 즉 다양한 단계의 마을 자원이 집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인구학적 특성<sup>2)</sup>

양천구 마을모임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전체의 40%로 가장 높고 다음은 50대와 30대 순이며, 20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양천구에서 마을활동이 가장 활발한 집단은 30대~50대 사이의 여성으로 이들의 비율이 전체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다. 이 중에서는 4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 남성 중에서는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3-7] 참조).

<sup>2)</sup> 서울시와 양천구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대표제안자가 3인 이상 모이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인구학적 특성은 모임을 이끄는 대표 제안자 3인과 실무책임자 1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3-7】 2015년 양천구 마을모임 참여자의 연령대별 현황**

구분	인원 수 (비율)
20대	7 (3.5%)
30대	37 (18.4%)
40대	81 (40.4%)
50대	50 (24.9%)
60대 이상	26 (13.0%)
계	201 (100.0%)

자료: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내부자료

**【표 3-8】 2015년 양천구 마을모임 참여자의 성별 현황**

구분		인원 수 (비율)
전체	남성	73 (36.3%)
	여성	128 (63.7%)
20대	남성	3 (1.5%)
	여성	4 (2.0%)
30대	남성	11 (5.5%)
	여성	26 (12.9%)
40대	남성	26 (13.0%)
	여성	55 (27.4%)
50대	남성	17 (8.5%)
	여성	33 (16.4%)
60대 이상	남성	16 (8.0%)
	여성	10 (5.0%)
계		201 (100.0%)

자료: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내부자료

# 04

---

##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본 마을활동의 의미

- 1\_연구참여자의 마을활동 이야기
- 2\_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본 마을활동의 의미
- 3\_소결

## 04 |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본 마을활동의 의미

### 1\_연구참여자의 마을활동 이야기

#### 1) 부모커뮤니티: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축구를 좋아하던 아이들은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학교 운동장에 모여 공을 찼다. 4학년 때는 친구들과 반별 토너먼트를 열어 축구 실력을 겨루기도 했다. 주말에는 축구를 잘하는 아빠에게 심판을 봐달라고 부탁해 친구들과 경기를 했다. 그러자 주말에 축구하러 오는 친구들과 동생이 점점 늘어났다. 축구를 마치면 부모님들이 사주신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저학년이었을 때는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 다니기에 바빠서 학교 모임에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큰 아이가 5학년이 되면서 학부모회 활동을 시작했고, 다른 반 학부모회 엄마, 아이 친구 엄마들을 만나게 되었다. 주말이면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과 남편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함께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간식비도 그만큼 늘었다.

연구참여자 A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 친구 부모들과 2012년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부모커뮤니티 사업에 지원서를 낸 것은 점점 늘어나는 간식비를 지원받고 싶어서였다. 서울시에서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을 신청서 제출 마감 전날에야 알게 되어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 부모와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부모를 부랴부랴 모아 지원서를 냈다.

운 좋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사업비 가운데 간식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아주 적었다. 대신 강화도로 1박2일 단체여행을 가는 등 새로운 활동을 진행했고 간식비는 모임을 함께 꾸러가는 다섯 가족이 회비를 내서 충당했다.

아이들은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전처럼 주말마다 학교 운동장에 모였고, 모임이 꾸러지면서 더 많은 아빠가 참여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 적게는 15명, 많게는 40명까지 모였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심판 겸 중재자로 축구를 지도하는 아빠는 ‘코치’로, 아이들을 챙기고 간식을 준비하는 엄마는 ‘매니저’로 불리게 되었고, 모임이 점점 커졌다. 부모들이 느끼는 책임감도 함께 커졌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공을 차는 일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아빠, 엄마가 함께 하면서 팀 구성과 포지션 정하기, 벌칙 등에서 새로운 축구 방식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축구를 하다가 욕을 하면 5분 또는 10분 동안 퇴장하는 벌칙이 있다. 연구참여자 A는 “너희끼리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며 욕을 하면 퇴장을 시키는 벌칙을 주자는 의견을 부모들이 제시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지켰다고 말했다.

토요일 오후에 운동장에 모이는 아이들을 보면 학년 구성도 다양하고 사는 동네도 초등학교가 있는 신정 4동에서 화곡동까지 넓다. 2012년 처음 모임이 만들어질 때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6학년이었는데, 중학교에 가서도 계속 나오고 중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오면서 사는 동네가 다양해졌다. 동생들도 함께 축구를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여러 학년이 섞여 축구를 하게 되었다.

거의 매주 축구를 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는 정해진 팀이 없이 오는 아이들에 맞게 코치가 팀을 구성한다. 어떤 날은 초등학생과 코치가 한 팀이 되고 중학생끼리 다른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한다. 어떤 때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코치가 한 팀이 되고 중학교 3학년이 다른 한 팀을 구성한다. 경기 시간도 기본이 40분이지만 아이

들이 재미있어 하고 연장전까지 진행되는 날이면, 한 시간 또는 한 시간 반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보통 토래끼리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덩치가 어른만 한 중학생과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힘들어 하면서도 형들과 축구를 하기 위해 계속 나오고, 중학생들은 처음부터 동생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나이와 몸집, 축구 실력이 다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섞여 축구를 하지만 중학생 형들이나 축구를 잘 하는 아이들이 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코치는 전반전에는 초등학생 동생들이 공격을 하고 중학생 형들이 수비를 하면 후반전에는 이를 바꾸는 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골키퍼도 10분씩, 7분씩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어 축구를 하는 것은 나이와 실력에 관계없이 다양한 역할을 해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아이들이 수비와 공격, 골키퍼를 다 해 보면서 각 포지션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재미를 느끼는 계기가 된다고 코치 역할을 하는 연구참여자 B는 말한다.

*꼬맹이들한테 공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애들도 좋아해요. 공격하는 애들도 수비해보니까, 수비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야. 맨날 공격만 하던 놈들은 공격하다가 못 넘어가게 하니깐 선을, 감질나는 겁니다, 넘어가고 싶은데. 꼬맹이들은 공격을 안 해봤던 놈들이니까 공격하니 어리둥절하지만 좋고, 전반까지는 또 그렇게. 후반전에는 공격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변형을 줘가면서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재미가 되거든요(2016.01.23. 연구참여자 B 면담녹취록).*

코치 역할을 하는 아버가 팀 구성이나 포지션을 정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구상

해서 아이들과 축구를 했던 것은 아니다. 토요일 운동장에 나오는 아이들 모두가 재미있게 축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나온 방법들이다. 이런 코치의 고민 결과물을 아이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 모임만의 독특한 축구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키가 140cm인 초등학생이 180cm가 다 된 형과 함께 축구를 하다 보면 공에도 맞기도 하고 각자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모임에서 진행되는 축구의 방식이 나름대로 공정하고 필요하다고 아이들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고 부모들은 생각한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 모임에서 부모는 아이들을 매주 반갑게 맞아주고, 축구를 같이 하며, 간식을 챙겨준다. 아이들에게 공부나 운동 등 할 일을 제시하고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부모-자식의 관계에서 한 발짝 나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규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욕설이 나오기도 있지만 부모가 함께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어른들이 나서 갈등을 중재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에 친밀감과 신뢰가 쌓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모임을 운영하는 부모들은 명절 때도 가능한 한 운동장에 나와 축구를 하러 오는 아이들을 챙긴다. 모임에 참여한 부모들이 아이들이 5학년 때 시작한 학부모회 활동을 졸업 이후에도 소모임 참여를 통해 이어가는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아이들 역시 학원과 축구 시간이 겹칠 때는 전반전만 뛰고 학원에 가거나, 학원에 갔다 조금 늦게 오는 등 열의를 보인다. 이처럼 아이들이 계속 축구를 하러 오고 부모들 역시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동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요일 운동장에 오는 아이들이 축구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친구는 물론이

고 이 모임에서만 만나는 다른 동네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을 친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 친구를 만나 함께 간식도 먹는 ‘즐거움’ 시간일 것이다.

서울시의 부모커뮤니티 사업에서 3년, 우리마을지원사업에서 1년 동안 지원을 받은 것 역시 모임을 지속하게 된 중요한 동인일 것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은 아이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축구 뒷바라지를 멈추기 어렵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주 토요일 운동장에 나가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모임을 진행하는 다섯 가족은 가족 모두가 모임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4년 넘게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아빠들은 운동장에 나가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엄마들의 몫이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 매년 지원서를 쓰고, 매달 사업비를 정산한다. 또한 계획서에 따라 여행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회의를 한다. 회의는 엄마들 위주로 진행되고 주로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 가족 모두가 활동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사업 초반에는 엄마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 놀기도 했다.

모임을 이끌어 가는 가족들 사이의 친밀함 역시 이 모임이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축구 하러 오는 아이들 전체와 갔던 1박2일 여행 이외에도 모임을 함께 하는 다섯 가족은 반찬도 나눠먹고 가족 모임을 갖거나 여행도 같이 가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서로 친해졌다. 연구참여자 A가 모임을 함께 하는 다섯 가족을 “마음이 붙어있는 사이” 또는 “동네 가족”이라고 부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앞에 놓고” 진행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거나 큰 갈등이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축구를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낸 덕분인지 사춘기인 자신의 아이들과도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A는 축구를 같이 한 7명의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 기념으로 캠핑을 갈 때 엄마들이 함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엄마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많이 뿌듯했다고 말한다. 축구모임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된 것도 모임 지속의 원동력이 됐을 것이다.

이 모임의 부모들은 매주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자신의 아이 이외에 다른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 사춘기를 겪으며 방황하는 모습, 부모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한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는 그만한 이유나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 한동안 축구를 하러 오지 않으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어디에 있을지’ 걱정을 하게 된다. ‘내’ 아이가 아니지만 운동장에서 만난 아이들 모두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 아이 혼자만 잘 크기는 힘들고 아이들이 모두 잘 지내야 내 아이도 잘 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깨달음도 이런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축구를 하면서 만난 아이들 모두가 “시아”에 들어오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다섯 가족 사이의 친밀감과 함께 ‘모든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모임 지속의 중요한 원동력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부모님들이 시간도 내시고 돈도 내셔서 이렇게 쪽 하시는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서로 좀 같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B: 그렇죠. 다 그 생각으로 모였죠, 우리가.*

*연구참여자 A: 다 아이들을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가. 우리 기준이 아니라 아이*

들이 크는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만 잘 클 수가 없어요. 주변 영향이 다 끼치기 때문에. 같이 자라야 잘 자라는 것이지, 내 아이만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런 생각을 모든 학부모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 A: 그렇죠. 내 아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네가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경우는 다들 집에서 자기 아이만 보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가장 소중한 것 같기도 하네요(2016년 1월 23일 연구참여자 A, B 면담녹취록).

연구참여자 B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보낸 시간을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표현한다. 출장이나 다른 모임이 있어도 ‘토요일 오후’는 늘 시간을 비워 아이들과 함께 한다. 연구참여자 A는 학부모회 활동을 시작한 시기에 축구모임도 하게 되었다.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엄마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축구모임을 시작으로 4년 넘게 마을활동을 하면서 ‘학교 안의 학부모’를 넘어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축구모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여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아는 아이들이 많고 서로 인사를 하며 지내지만 정작 부모 가운데는 토요일 오후에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토요일 축구를 하러 오는 아이들의 부모 중에도 아이들이 축구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할 때, 주변 마을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4년 넘게 모임을 하면서, 부모들은 운동장에 모이는 아이들 모두가 재밌게 축구를 하고 잘 자라기를 바라게 되었고, 다섯 가족은 “동네가족”이 되었다. 이

런 바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해 왔지만 그 영향이 동네에까지 퍼지지는 못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모임이 여기저기에 많이 생기기를, 지금 축구를 하러 오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도 계속 나와 모임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 2) 아파트 공동체: 소통하는 ‘가’ 아파트 만들기

연구참여자 C와 D가 살고 있는 ‘가’ 아파트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일명 시프트(SHift)로 2011년 입주를 시작하였다. 1단지에서 5단지까지 약 3천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분양과 장기전세가 섞여 있는 혼합세대이다. 연구참여자 C와 D가 살고 있는 3단지는 세대 수가 가장 많은 단지이고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다.

연구참여자 C와 D는 “가’ 아파트 이야기”라는 네이버 지역카페(이하 이야기 카페)에서 카페지기과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C는 ‘가’ 아파트로 이사를 오기 전 혼합세대로 구성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소유주인 주민과 임대인인 주민 사이에 갈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줄여보고 싶은 마음에 카페를 열었다.

이야기 카페는 개설 초기 회원이 1천3백여 명에 달할 정도로 입주 예정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연구참여자 C는 입주 전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들 교육환경이 어떤지 궁금하던 차에 카페가 개설되자 많은 사람이 가입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프트는 입주를 위해 일정한 자격 심사를 하는데 다자녀 가구는 가산점이 있어 미취학 및 취학 연령대의 아이가 있는 젊은 가구주가 많은 점도 카페 회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연구참여자 C는 입주 전 다른 혼합세대에서 일어난 갈등 사례를 접하면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했다. 또한 혼합세대인 다른 시프트처럼 ‘가’ 아파트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입주민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관련 정보를 카페에 많이 올렸다.

*차리리 더 굵기 전에 터트러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차리리 훨씬 더 빨리 해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꺼내느라고 카페를 통해 많이 했었죠, 초기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정보나 갈등 사례라든가 다른 동네의 사례 같은 것도 끄집어 내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입니다, 라는 정보를 계속해서 끄집어 올려 봤었죠. 해소하고 싶어가지고(2016년 1월 16일 연구참여자 C 면담녹취록).*

이야기 카페에 많은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고 소모임도 만들어지면서 카페를 혼자 운영하기가 힘들어진 연구참여자 C는 카페를 함께 운영할 사람들을 모았다. 카페에 ‘스태프 모집’ 공지를 올리고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는 회원에게 쪽지를 보내 운영진 참여를 권유했다. 연구참여자 D는 카페 스태프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카페 활동이 활발한 회원 중 한 명이어서 연구참여자 C가 “동네에서 차 한 잔 합시다”라는 쪽지를 보내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마을일을 함께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D가 마을일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은 ‘방범대’였다. 방범대는 입주하고 1년 쯤 뒤에 모집했는데 일주일 한 번씩, 밤 9~11시 사이에 마을을 순찰하는 것이다. 주민들끼리 동네에서 서로 얼굴도 알고 지내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따로 뭔가를 하기는 어렵고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범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연구참여자 C로부터 이야기

카페 스태프를 중심으로 3단지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단지 내 초등학교에 책을 기부하던 모임을 마을축제 모임으로 함께 키워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2013년 이야기 카페 스태프와 연구참여자 D처럼 마을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다섯 명이 모여 ‘마을지기’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마을에서 서로 알게 지내던 사람들이 ‘마을축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해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연구참여자 C는 그 전부터 마을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이런저런 마을일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 ‘마을지기’라는 이름을 ‘얹혀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지기는 이후 일 년에 한 번씩 마을축제를 준비해서 진행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청소를 하고 있다. ‘가’ 아파트 마을축제는 2011년 이야기 카페 스태프들 중심으로 준비했던 아나바다 장터에서 시작하여 2012년에는 열리지 않았고, 2013년부터는 매년 진행되고 있다. 처음 두 번은 3단지 안에서 열렸는데 그러다 보니 ‘가’ 아파트 전체 축제가 아니라 3단지 축제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 2014년부터는 단지 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하였다.

2014년 축제부터는 마을지기가 중심이 되어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축제 준비를 할 때는 마을지기 각자의 역할이 있다. 대표는 전체 준비를 아우르고, 총무는 공연팀 섭외나 후원을 알아보고, 회계는 돈 관리를 하고, 다른 두 사람은 바자회나 먹거리 장터를 준비한다. 축제 운영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지기가 함께 의논하되 서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준다. 연구참여자 D는 마을지기 활동에서처럼 다른 마을일에서도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을지기가 축제를 준비하지만 ‘가’ 아파트의 이력저러한 모임들이 모두 참여

하여 축제를 진행한다. 이야기 카페의 소모임 중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1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맡고, 주민들이 단원인 마을합창단과 단지 내 예체능학원에서는 공연을 올리고, 방범대는 축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방식이다.

2012년 한 해 마을축제를 쉬었을 때 ‘왜 안 하느냐고’ 묻는 주민이 있고, 아이들은 봄부터 아나바다 장터에서 팔 물건을 챙기는 등 아파트에서 축제의 인기가 높다. 마을축제는 1천5백 명~2천 명 정도 모이는 큰 행사이고 4회째 열리다 보니 마을지기들은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새롭고 즐거운 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늘 고민하게 된다.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 처음으로 양천구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지원비를 받아 축제 준비와 운영에 도움이 되었지만 정산이나 여타의 측면에서 할 일이 많았다. 서울시나 양천구를 비롯하여 외부 지원을 받으면 축제 준비가 원활하고 축제 당일 자원봉사자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마을지기들은 외부 지원에 대해 늘 고민을 하게 된다.

마을지기 모두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생기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한 다음, 오프라인으로 모여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 이때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 D의 말처럼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지기도 하고 논의하다 보면 “좋은 의견”으로 결정이 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C는 마을지기 대표의 입장에서 함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연구자 : 그러면 말씀 나누고 의논하는 시간이 긴 편이시겠네요.*

*연구참여자 C: 네, 많이 길어요. 카페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시간에 쫓겨서*

결정할 때까지, 카페 마감할 때까지 두세 시간 해요, 회의할 때. 그 전에 미리 단독이라든가 그런 거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모여서 결론 못 내죠.

연구자 : 그렇구나. 그래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자신 의견이 반영된다는 그게 좀 있기 때문에 결정에 힘이 있겠네요.

연구참여자 C :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전체가 다 동의를 해야죠. 하다 보면 맘에 안 드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설득할 때까지 얘기해요, 서로가 서로한테. 서로가 서로에게 설득 당하면 결정을 하는 거죠(2016년 1월 16일 연구참여자 C 면담녹취록).

마을지기는 매달 마을 청소도 진행한다. 이야기 카페에 하루나 이틀 전에 마을 청소를 한다고 알린 다음, 모인 사람들이 단지를 돌면서 청소를 한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은 사전에 자원봉사 신청을 해서 가기도 했다. 마을 청소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마을청소를 하러 가면 부모와 아이들이 연결되어 가족 전체를 알게 된다. 그래서 방범대를 하다가 늦은 시간인데 밖에 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를 떠올리며 ‘열린 집에 들어가라’고 타이르는 일이 자연스럽다.

연구참여자 D는 ‘가’ 아파트 주민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자신이 노래를 좋아하고, 전에 다른 곳에서 합창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2014년 ‘마을합창단’을 만들었다. 방범대와 탁구회 등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마을 내 오프라인 동아리에도 홍보를 하고 이야기 카페에도 합창단 창단을 알렸더니 주민 중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었다. 지금은 단원이 45명에 이르고 매주 화요일 연습에는 35명 정도가 나온다. 양천구 내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져서 정기공연 이외에 외부 공연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에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연 요청에 참여할 수는 없지

만 매주 두세 시간씩 동네에서 알차게 합창 연습을 하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가’ 아파트는 2011년 입주를 시작한 뒤로 마을축제가 네 차례 열리고, 온·오프라인 소모임도 많이 운영되어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친해질 기회가 많은 아파트이다. 이야기 카페의 소모임은 오프라인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한번 축제를 할 때마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D는 ‘가’ 아파트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으싸 으싸” 한번 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난 4년간 마을 주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마을활동을 진행해 온 결과, 연구참여자 D가 가졌던 바람, 즉 “동네에 아는 얼굴이 있는, 정이 있는” 그런 마을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C가 걱정했던 혼합세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온·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날수록 갈등의 여지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C가 말한 것처럼 “공간을 공유한다고 마을이 되지 않고, 공유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소통하는 마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진행형이라고 보인다.

‘가’ 아파트는 온라인 지역카페와 오프라인 주민 모임, 마을축제 준비팀인 마을지기, 마을축제를 함께 준비한 초등학교 학부모와 상가 사람들 등 마을 내의 이런저런 모임으로 엮어진 사람들끼리의 느슨한 연대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입주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마을에서 이루어진 주민들 사이의 다양한 모임과 만남의 기회가 이런 느슨한 공동체를 일구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3)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주민협의체: ㅅ동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마을발전 계획

연구참여자 E와 F 모두 마을일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었다. 연구참여자 E는 ㅅ동에서 34년 가까이 살면서 동네에 정이 많이 들었다. 정년 퇴임 후 학교보안관 등 다른 일을 하다가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을 위해 봉사할 일을 찾다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E는 ㅅ동이 지난 서울시장 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당시 주민대표로 참여한 경험도 있다.

연구참여자 F는 이 동네 주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십여 년 전에 ㅅ동에 개인 사무실을 내면서 다시 인연을 맺었다. 이후 ㅅ동에서 학부 전공을 살려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처음 부동산 중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경험 부족으로 좌충우돌했지만 지금은 삶의 터전이 된 동네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연구참여자 F 역시 마을을 위해 봉사할 곳을 찾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보통 주민자치위원은 주변의 추천으로 선정 되는데 연구참여자 F는 자원을 했다. 조직의 특성을 잘 모르고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자치위원이 된 다음에도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따로 설명을 들지는 못했다. 자치위원 중 가장 젊었기 때문에 기획이나 발표를 주로 맡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E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연구참여자 F가 분과장으로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과’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 분과의 주요 역할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F는 연구참여자 E가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자신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 E는 연구참여자 F가 주민센터에 ‘인문학동아리’를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잘 운영될 만큼 기획 능력이 있고, 자신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여긴다.

두 연구참여자가 살고 있는 S동은 양천구와 강서구의 경계로 생활권과 학군이 강서구와 가까우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양천구에 편재되어 있다. 근처에 공항이 있어 소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군부대도 인접해 있어 고도 제한으로 건축 시 용적을 제한이 있다.

S동을 둘러보면 건축한 지 30년이 넘어 담이 기운 연립주택도 쉽게 눈에 띄고, 주차장이 없고 반치층이 깊게 조성된 1980~1990년대 초에 지은 단독주택들이 많다. 따라서 주민들 모두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큰 실정이다. 연구참여자들에 따르면 지난 서울시장 재임 시 S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택 소유주가 내야 할 분담금이 많은데다, 소유주들이 월세를 포기하고 30평형대의 아파트를 선택할 동인이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발 지구에서 해제되었다.

연구참여자 F는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S동의 경우 대규모의 개발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E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S동이 서울시의 주거환경 관리사업 예비지구로 선정되었고,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할 주민협의체가 꾸려졌다.

연구참여자 F는 주민들 추천으로 지역을 알고 전문적 소양을 갖춘 '도시재생활동가'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S동 주민협의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E 역시 마을 주민의 일원으로 주민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E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임원진과 분과로 구성되는데 처음에 참여했던 임원진이 중간에 바뀌어 현재는 자신과 연구참여자 F를 제외하고는 새로 구성된 상태이다. 연구참여자 E는 현 주민협의체가 회장과 총무, 연구참여자 F, 그리고 자신이 "네 개의 기둥"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주민협의체의 주요 임무는 서울시가 S동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위탁사로 선

정한 N사와 함께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N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마을 청소를 하면서 마을을 다시 둘러보고 개선이 필요한 환경 요소를 찾아나갔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는 기존 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소규모의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이용시설의 공간 구성과 운영방안, 프로그램 구성도 주민들과 N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N사는 '협동조합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현황, 성공 요소' 등 마을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했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름밤에는 모기에 물려가며 동네 골목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다. S동의 주거환경 관리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과 N사는 매주 2차례씩 워크숍을 가졌는데, 총 40~50회에 이를 것이라고 연구참여자 E는 말한다.

주민협의체의 주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S동에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주민은 조를 짜서 사업 지구에 속한 전체 863세대를 방문했다. 주민 중에는 직접 만나기 어려운 주민도 많았기 때문에 우편함에 설문지를 넣고 재수거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었고 설문지를 버리는 주민을 목격하기도 했다. 설문조사는 서너 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전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E가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틀에서 주민협의체의 일원으로 S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마을 경제 활성화'이다. 서울시가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 주지만, 공간 운용에 필요한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기본 운영 비용은 주민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 사업을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재미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어야 S동 주민들이 마을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

서 사동에 있는 가방협동조합과 연계해서 동네 노인들의 부업거리를 마련하거나 가방을 판매하는 일이라든지 반찬사업,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아이돌보미 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주민들과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성공시켜야 해요. 그래야 마을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밀로 할 것이냐. 너무 흔해 빠진 것은 성공 확률이 적고, 우리 마을에 적합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대가 있고 학교가 있으니 부대와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반찬이라든가 친환경, 그런 식품을 개발해서 납품 길을 뚫으면 되지 않겠느냐, 가방조합이 있으니 가방조합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일감을 드리면서 가방 판매를 대행할 수 없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2016년 1월 23일 연구참여자 E 면담녹취록).*

사동 주민들이 2015년 ‘장 담그기’로 양천구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참여하고, 2016년에는 ‘사회적경제 학습 동아리’에 선정되어 관련 학습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모두 마을 주민들의 ‘마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F는 사동 주민의 일원이자 도시재생활동가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F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 관계’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주민과 활동가 사이에서도 서로 믿을만한 사이가 되고, 필요한 사이가 되어야 마을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활동가로서 자신의 역할은 주민들이 방향을 고민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F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공부한 전문가이자 활동가로

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 주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주민이 적고, 주민들 각자가 그동안 생업에 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사업 계획 수립과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 따라서 느리더라도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주체적으로 마을 계획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마을에서 활동할 주민들을 발굴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F: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마을을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깨어서 중심 잡고 나가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연구자: 마을을 좀 좋고 잘 키워나가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연구참여자 F: 음.. 그렇죠. 좀 더디더라도 주민들이 그 속에서 주도적으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뭔가 힘이 길러질 수 있게끔, 좀 힘들어도 그런 걸 많이 하는 방안들을 계속해 모색해 나가야 정말 건강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2016년 1월 29일 연구참여자 F 면담녹취록).*

사동이 서울시 주거환경 관리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면 주민 총회를 열어, 2년 여 걸쳐 수립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운영위원회로 확대되어 주민들과 함께 사동의 마을살이를 함께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 2\_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본 마을활동의 의미

### 1) 부모커뮤니티: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아빠,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축구하는 모임에서 사회적 학습은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모임 초기의 사회적 학습은 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활동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분하며, 사업이 진행되면 매달 사업비를 정산하는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일련의 방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따로 챙겨야 하는 부분에 대한 학습도 있다. 부모 동의서를 받아 아이들 각각에 대한 인적사항을 담은 카드를 만들고, 매주 간식을 정하여 학교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사오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때 엄마, 학부모회 대표, 기자 등 부모의 사회적 역할과 취미활동에서 쌓인 지식과 노하우가 적극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모들은 전화와 카카오톡,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결정을 한다. 모임을 운영하는 부모들 사이의 집단적 의사소통을 통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맥락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다.

이 모임의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회적 학습은 함께 모임을 운영하는 부모들이 공유하는 가치, 즉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만나는 아이들 모두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 모임을 처음 만들 때도 서로 통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서로 공유하는 지점이 생겼고 이것이 모임 지속의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물론 이 모임의 부모들이 4년 넘게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소는 또 있다. 아이들이 신나게 축구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설날에도 차례를 지내고 나면 운동장으로 나가 가족 여행도 뒤로 미루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매주 축구 하러 오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내 아이만이 아니라 아이의 친구, 동생이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보람도 크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기쁨과 보람 이외에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가족들 간의 친밀함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믿음은 활동 지속의 원동력이자 중요한 사회적 학습의 내용이다. 연구참여자 A가 “마음이 붙어 있는 사이”라고 말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은 이 모임의 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회적 학습이다.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모임에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학습은 이 모임만의 독특한 축구 문화인데 이는 코치와 아이들과의 상호 작용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매주 모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축구 실력과 성격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고 포지션을 바꿔온 것은 코치의 지속적인 고민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아이들과 축구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코치와 아이들 사이의 상호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모임은 부모와 아이들 모두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코치의 결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학년이 섞여 축구를 해나가면서 아이들 스스로 다양하게 팀을 구성하고 누구나 수비와 공격, 골키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매주 축구를 하며 지낸 아이들과 부모 사이의 친밀함과 신뢰 역시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 요소이다.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이 멋진 플레이를 하면 아이들은 “잘했어!”하면서 엉덩이를 토닥거릴 만큼 친하게 지낸다고 말한다. 또

한 아이들은 모임이 시작되기 전 코치 역할을 하는 아빠가 조기 축구회 아저씨 들만 사용하던 축구 골대를 제자리에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마도 아이들은 이 일을 계기로 모임의 부모들에 대한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을 것이다. 매주 토요일 운동장에 나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신나게 축구를 하고 나면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는 ‘부모님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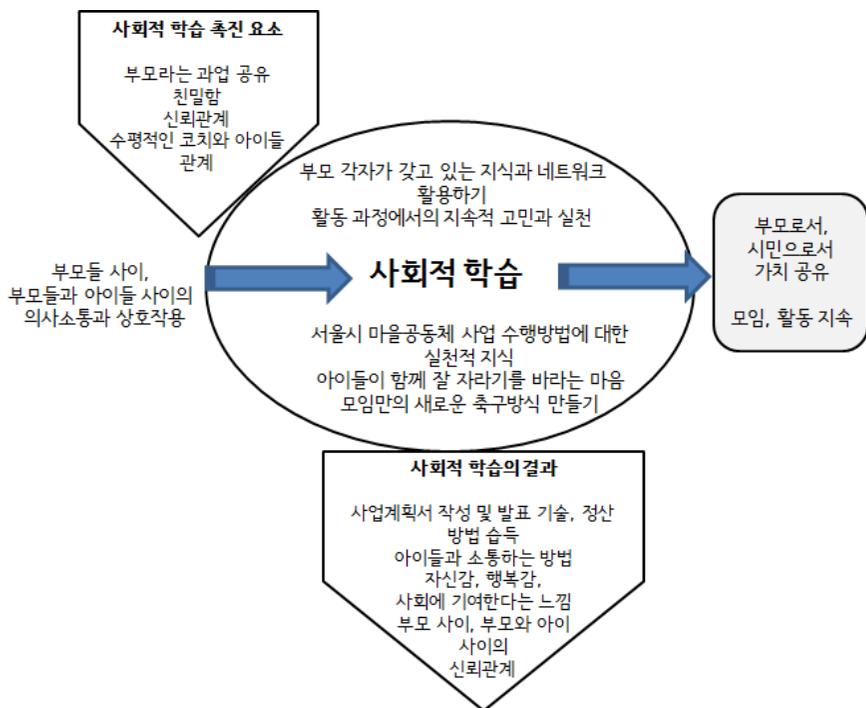
아울러 코치와 아이들이 통상적인 어른-아이의 관계에 비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축구를 해온 점도 이 모임만의 축구방식을 만들어 온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소라고 보인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코치의 판정에 문제제기를 할 때, 코치는 화를 내기보다 아이들이 직접 심판을 보게 하면서 코치의 권한을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심판의 어려움을 직접 겪게 하는 것처럼 수평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들고 남이 있지만 아이들이 계속 축구를 하러 나온 것은 이 모임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만들어간 축구 문화가 괜찮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과 코치 사이의 수평적 관계는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자 이 모임만의 독특한 축구문화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아빠, 엄마와 함께 하는 축구 모임에서 사회적 학습은 사업을 함께 진행해 온 부모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축구를 하면 운동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과 코치, 부모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모임이 진행되는 과정은 부모들 사이에,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에 집단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서울시 마을사업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얻고 코치와 아이들은 이 모임만의 독특한 축구 문화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다섯 가족 사이의, 그리고 코치와 아이들 사이의 친밀감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그림 4-1]은 아빠, 엄마와 함께 하는 축구모임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을 도식화한 것이다. Muro and Jeffrey(2008)가 제안한 자연자원 관리 분

야에서의 사회적 학습 모델([그림 2-1] 참조)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들의 모델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자신 및 다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참여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학습의 중요 요소였다.

이와 달리 아빠, 엄마와 함께 하는 축구 모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게 해주자’는 같은 요구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 모임을 구성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다른 관점의 확인과 조정보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을 통해 그 모임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1]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하기’ 모임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

아빠와 엄마 함께 축구하기 모임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모임의 부모들은 활동을 계속하면서 부모 각자가 가진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만들어 나갔다. 활동 수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 사업비 정산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과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쌓아간다. 나아가 내 아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이 함께 잘 자라야 한다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간다. 팀을 구성하고 포지션을 이동하는 이 모임만의 독특한 축구 방식 역시 아이들과 부모 사이의 사회적 학습 결과물이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의 과정은 모임을 이끌어 가는 다섯 가족 사이의, 그리고 매주 운동장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부모 사이의 친밀함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다. 이 모임의 활동과 사회적 학습 과정은 분리된 어떤 것으로 보기 어렵다. 모임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구성원 사이의 집단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2) 아파트 공동체: 소통하는 ‘가’ 아파트 만들기

‘가’ 아파트는 2015년 마을축제 때 양천구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빼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큰 관련을 맺지 않고 마을 만들기를 해온 사례이다. ‘가’ 아파트 사례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함께 활동했던 온라인 지역 카페와 마을축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학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학습의 양상은 크게 온라인 지역 카페와 마을축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각각에서 학습의 단위가 개인, 모임, 아파트 주민 전체 등으로 구분되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개념적인 것이며, 실제 마을활동과 마을살이에서는 서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가’ 아파트 마을축제는 지역카페 운영진이 2011년 겨울 기획한 아나바다 장터에서 시작되었고 멤버십이 겹치기 때문에 둘

사이에 공유 영역이 존재한다([그림 4-2] 참조).

온라인 지역카페와 마을축제에서 나타난 개인과 모임, 아파트 주민 전체 등 학습 단위별 사회적 학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지역카페에서의 사회적 학습은 카페지기 개인의 차원, 카페에서 활동하는 소모임과 운영진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주 전부터 ‘가’ 아파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카페지기는 “가’ 아파트 이야기”라는 온라인 지역카페를 만들었다. ‘가’ 아파트와 같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알고 싶어 가입한 ‘시프트’에 대한 네이버 카페에서 혼합세대의 갈등 양상을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전에 살던 영등포를 기반으로 한 지역카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았던 것도 이야기 카페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역카페를 매개로 만들어진 온오프라인 모임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지역카페에 모여든 주민들은 새로운 곳에서 삶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누었고 다양한 소모임을 꾸렸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 온라인 소모임은 오프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 친해지면, ‘언니, 동생’ 하며 허물없이 지냈다.

		온라인 지역카페 ‘가’ 아파트 이야기		‘가’ 아파트 마을축제		
학습의 단위	아파트 주민	카페 회원		축제 방문자		
	모임 /계시판	조기축구회	손뜨개	스텐실 마을 지기	먹거리장터 자원봉사자	공연팀 방법팀
	개인	자유계시판	아나바다계시판	카페운영진	초등학교 학부모회	아나바다장터 판매자
		카페지기				

[그림 4-2] ‘가’ 아파트 공동체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다양한 단위

카페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알게 된 것은 주변에 내 관심사를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단지를 오가면서 만나고 연령대가 비슷한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도 서로 만나게 된다. 점점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나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낯선 아파트는 친근한 우리 동네가 되어 간다. 이는 사회적 학습의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카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 운영진 활동을 하게 된 주민들은 그때그때 카페에서 생기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예를 들어 광고나 공동구매 요구가 있을 때, 카페가 돈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겪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네이버의 ‘해피빈’을 이용하기로 한다. 해피빈에 일정 금액이 모이면 회원 투표로 기부처를 정했다.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이러한 방안은 운영진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사회적 학습의 산물이다.

카페 운영진 중에서 일부는 마을활동에 관심 있는 다른 주민과 함께 마을지기라는 모임을 만들어 마을축제를 열었다. 그러면서 카페 회원뿐만 아니라 ‘가’ 아파트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갔다. 마을축제는 카페 운영진과 마을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마을 전체가 참여한다.

마을축제에서의 사회적 학습은 축제를 준비하는 마을지기, 먹거리장터 자원봉사자, 초등학교 학부모회, 공연팀 등 다양한 모임에서 나타나고 축제에 놀러오는 마을 주민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우선 마을지기에 참여하는 주민 사이의 사회적 학습의 양상을 살펴보자. 마을지기들은 각자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을 가진 상태에서 1천5백 명~2천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의사소통 채널과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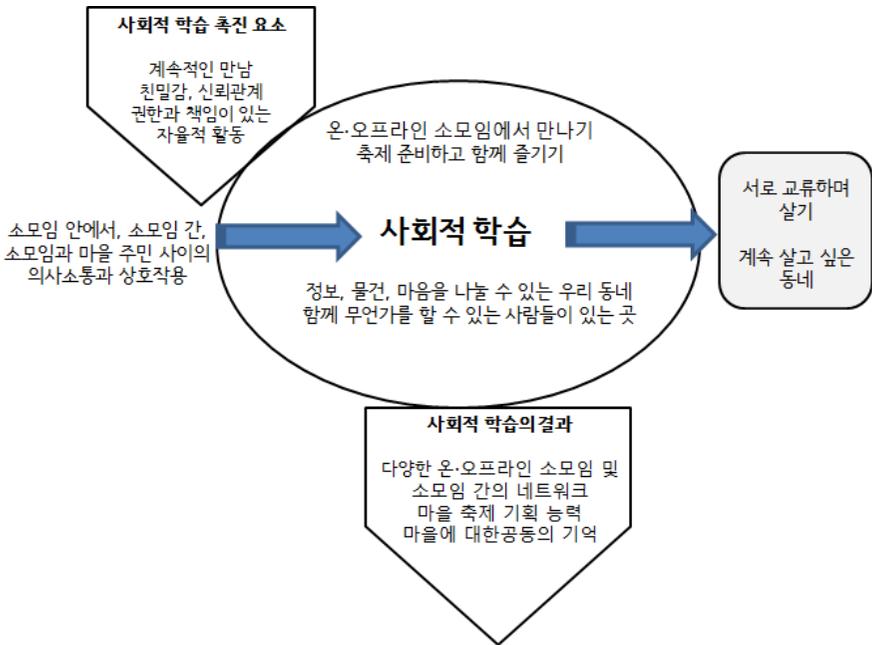
프라인 모임을 적절히 활용한다. 또한 좀 더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라는 선의를 위해 함께 일하면서 서로가 힘들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공동의 의견을 도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는 나름의 모임 운영 방법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

축제에 아나바다 장터 판매자나 먹거리 장터 자원봉사자, 공연팀, 방범대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의 참여로 축제가 좀 더 풍요로워졌다는 보람과 초등학교의 책과 시설 마련에 쓰일 수익금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게 된다. 이 또한 모임 수준에서 일어난 사회적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동네를 산책하다 축제에 들른 주민은 체험부스와 아나바다 장터도 둘러보고 먹거리 장터에서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가’ 아파트 주민들은 축제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나름의 어려움과 보람, 즐거움을 느끼며 마을축제라는 공동의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공동의 기억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마을에 대한 애정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카페와 온오프라인 소모임, 마을축제 등을 통해 개인, 모임, 마을주민 전체 등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적 학습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3]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가’ 아파트 주민들의 사회적 학습 양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 아파트의 주민들은 온라인 지역카페와 오프라인 소모임을 통해 서로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들 소모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마을 안에서 축제라는 큰 행사를 열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꾸려진 소모임의 친밀한 분위기, 온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만남, 카페 운영진과 마을축제 준비팀에서의 열린 의사소통과 자율적 운영방식 등은 마을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사회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 '가' 아파트 공동체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

이러한 만남의 과정에서 낯선 동네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물건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 간다. 카페 운영진과 마을축제 준비팀으로 만난 마을지기는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공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각과 마음을 나눈 덕분에 서로에게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을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중요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빠, 엄마와 함께 하는 모임의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양상([그림 4-1] 참조)과 비교하면 '가' 아파트는 주민들 사이의 만남과 소통이 많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축구모임은 구성원이 다섯 가족과 축구하러 오는 아이들로 그 경계가 비교적 확실한 데 비해, 산내아파트는 다수 주민으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임 내에서의, 모임 간의, 마을 주민 전체 사이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부모로서 ‘아이들이 함께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마을 주민으로서 ‘필요한 정보나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누는 동네 만들기’ 같은 공동의 지향점 또는 가치가 사회적 학습의 중요 요소였다.

### 3)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주민협의체: 사동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마을발전 계획

연구참여자 E와 F가 마을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해 온 고민은 주거 환경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주민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연구참여자가 사동 마을활동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르지만, 면담 과정에서 공통적인 학습 내용이 발견되었다. 마을활동 공간으로서 사마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이것에 기반을 두고 마을활동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의 두 가지이다.

이러한 고민은 연구참여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주민협의체에 참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생겨났고 실천 속에서 나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마을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의미를 주민협의체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 E와 F 모두 사동에서 각각 30년, 15년 이상 살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마을일을 해 왔기 때문에 동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 하지만 주거환경 관리사업 상의 주민협의체 일원으로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마을을 다시 살펴보고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면서 마을을 다시 보게 되는 측면이 있다. 즉 ‘마을활동’이라는 맥락에서 사동과 주민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마을활동을 보는 관점이나 반응이 각자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들을 키우며 경제활동을 하느라 바쁜 젊은 층이 마을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때로 귀찮아하는 것이 이해된다. 또한 혼자 살면서 매일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인 가구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것을 보면 마을일에 대한 걱정보다 마음이 아프다. 주민 중에는 함께 모여 무엇을 배우는 것이 낯선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방식의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주거환경과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구참여자 F는 현재 S동에서 마을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은 10명~30명 정도인데, 전체 860여 세대 가운데 10% 정도는 모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바람 또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을의 상황에 대한 판단 속에서 연구참여자 E는 현실적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분들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가정 경제를 꾸릴 수 있어서 저녁 모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주민들의 마을활동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소수지만 마을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과 먼저 활동을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거리, 마을활동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를 늘 고민한다. 연구참여자 E가 사회적 경제나 마을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마을활동과 경제활동이 결합되어 뭔가 소기의 성과가 있을 때 주민들이 마을일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F 역시 주민이자 활동가로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한 마을활동을 어떻게 구성할지, 마을에 애정이 있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계속한다. 연구참여자 F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마을일을 고민한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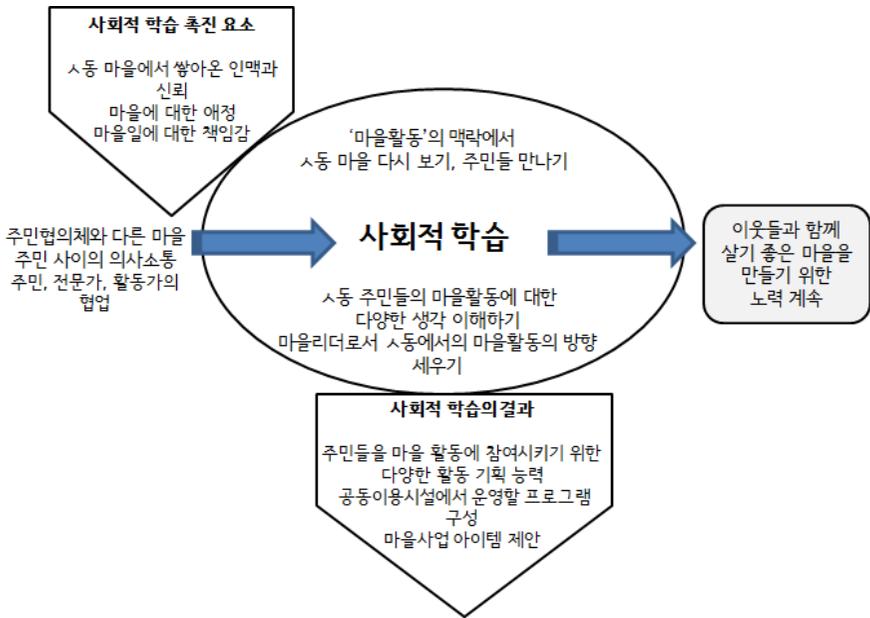
답에 어떻게 하면 스동이라는 “주거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갖고 있다. 현재 스동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은 주거환경의 조화로운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된 중개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큰 틀에서 주거 환경을 설계하는 주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마을에 대한 이해와 활동 방향 설정은 마을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방안과 주거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과정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체득한 것이다.

즉, 연구참여자들이 스마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것에 기반을 두고 마을활동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활동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 이들의 마을활동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스동에는 바빠서 마을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젊은 층과 생계 걱정으로 마을활동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노인층,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주거환경에 반대하는 층 등 다양한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일을 위해 모일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육체적 여력이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먼저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과 경제활동을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림 4-4]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으로 드러난 스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상 주민협의체 활동 과정에서의 사회적 학습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참여자를 포함한 스동 주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한 주민협의체 활동 과정은 동네 주민을



[그림 4-4] 사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 활동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

‘마을활동’이라는 맥락에서 만나면서 이들이 마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마을활동의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행계획으로 불리는 마을의 발전 방향을 주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세워나가는 참여와 협업의 과정을 통해 가능했다. 연구참여자와 주민협의체에 참여한 다른 주민들이 사동에 오랫동안 살면서 쌓은 신뢰와 인맥,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정과 마을일에 관한 책임감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학습의 결과, 연구참여자와 같은 마을 리더들은 공동이용시설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마을사업 아이টে을 제안할 수 있었다. 또한 좀 더 다양한 마을 주민을 만나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는 나름의 노하우도 쌓아나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학습의 결과물이 2년 동안 4사와 함께 한 워크숍만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연구참여자들이 삶의 이력에서 쌓아 온

경험과 주민협의체 일원으로서의 활동한 경험이 종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스동 주민협의체 사례는 앞 절에서 살펴본 아빠, 엄마와 함께 하는 모임이나 '가' 아파트 공동체와 비교하면 사회적 학습의 주체 범위가 가장 좁다. 스동이라는 공간적 범위와 주민의 수는 많지만 사회적 학습 양상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상의 주민협의체로 제한하여 살펴본 까닭이다. 그 결과 사회적 학습의 주체가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는 마을리더들이 되고 이들의 마을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 중요한 사회적 학습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 3\_소결

마을활동은 사람들이 공동의 필요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마을일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함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의견 조율과 협력 과정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 대립하거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사회적 학습은 Bandura(1977)가 말한 개인 상호 간의 학습으로 정의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는 집단적 과정으로 본다(Muro and Jeffrey, 2008; Wals and Leij, 2009; Willemsen et al., 2009).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동의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활동에는 집단적 수준의 사회적 학습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마을활동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은 마을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집단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과정,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습의 내용과 촉진 요소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자연자원 관리 분야의 사회적 학습 양상을 분석한 Muro and Jeffrey(2008)의 모델을 기초로 도출한 분석틀(그림 2-3 참조)을 토대로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을 조사하였다(표 4-1 참조).

【표 4-1】 연구참여자의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특징

구분	사회적 학습		
	내용	촉진 요소	결과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방법</li> <li>아이들이 함께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li> <li>모임만의 새로운 축구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라는 과업 공유</li> <li>친밀감, 신뢰관계</li> <li>수평적인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기술, 정산 방법</li> <li>아이들과 소통하는 법</li> <li>사회에 대한 기여감</li> <li>부모 사이의,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신뢰</li> </ul>
'가' 아파트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네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물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li> <li>무엇인가를 함께 할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생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밀한 분위기</li> <li>지속적인 만남</li> <li>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율적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소모임</li> <li>소모임 간의 네트워크</li> <li>마을축제 기획 능력</li> <li>마을에 대한 공동의 기억</li> </ul>
스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지구 주민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동 주민들의 마을활동에 대한 다양한 생각 이해</li> <li>리더로서 스동에서의 마을 활동 방향 세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에서 쌓아온 인맥과 신뢰</li> <li>마을에 대한 애정</li> <li>마을일에 대한 책임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활동 기획능력</li> <li>공동이용시설 운영 프로그램</li> <li>마을사업 아이템</li> </ul>

마을활동에서의 사회적 학습을 Muro and Jeffrey(2008)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학습의 내용이었다. 자연자원 관리에는 지역주민, 정부, 기업, 생태계 또는 생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만큼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서의 사회적 학습은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관점을 알고, 상호 간의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존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마을활동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과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은 실행과 반성의 과정에서 형성된 '모임만의 새로운 축구방식', '마을리더로서 스동에서의 마을활동 방향' 등과 같은 실천적 지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이들이 함께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인가를 함께 할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생각’ 등처럼 공동의 가치로 표출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요소에서 나타난다. Muro and Jeffrey(2008) 모델에서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소로 제시된 ‘지속적인 만남과 열린 의사소통 체계’는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학습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책임감, 친밀함, 마을에 대한 애정’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들은 마을활동에서만 발견되었다.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 비해 마을활동에서 모임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와 마을에 대한 애정 등은 활동 지속의 원동력이자 사회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학습이 집단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자연자원 관리 분야와 마을활동에서 동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상이 ‘부모들 사이, 부모들과 아이들 사이’, ‘소모임 안에서, 소모임 간’, ‘주민과 전문가, 활동가 사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마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의 결과물 역시 Muro and Jeffrey(2008)의 모델에 제시된 실질적 지식, 기술적 기능, 사회적 기능, 인지 및 태도 변화, 신뢰 관계 등과 유사했다. 즉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기술, 정산 방법’, ‘마을축제 기획 능력’, ‘마을활동 기획 능력’ 등 마을활동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지식과 기능이 사회적 학습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 ‘부모 사이의,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신뢰’ 등과 같은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도 제시되었다.

Muro and Jeffrey(2008)의 모델에서 사회적 학습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된 집단적 행동은 이 연구 사례에서는 모임 또는 마을활동 지속으로 구현되었다. 마을활동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사회적 학습은 지속적인 마을활동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 05

---

## 결론 및 정책제언

1\_결론

2\_정책 제언

## 05 | 결론 및 정책제언

### 1\_결론

이 연구는 마을활동이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동의 필요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며, 이 속에서 내가 아닌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 차원의 학습이 수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마을활동에 내재된 공동체성과 학습주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일련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자원 관리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학습에 대한 논의는 마을활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접근이라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학습은 Bandura(1977)가 말한 것처럼 개인 상호 간의 학습으로 정의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는 집단적 과정으로 본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동의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활동에는 집단적 수준의 사회적 학습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학습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양천구에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가운데 연구 취지에 동의하고 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부모커뮤니티, 아파트 공동체, 주거환경 관리사업 상의 주민협의체 등 세 그룹의 6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Muro and Jeffrey(2008)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 모델을 참고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마을활동 분석 시 사용할 사회적 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마을활동에서의 사회적 학습은 Muro and Jeffrey(2008)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학습의 내용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모델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관점을 알고, 상호 간의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존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적 학습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달리 마을활동에서는 실행과 반성의 과정에서 형성된 ‘모임만의 새로운 축구방식’, ‘마을리더로서 스동에서의 마을활동 방향’ 등과 같은 실천적 지식 및 ‘아이들이 함께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인가를 함께 할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생각’ 등처럼 공동의 가치가 사회적 학습의 중요 내용이었다.

또한 마을활동에서 사회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서 제시된 ‘지속적인 만남과 열린 의사소통 체계’뿐만 아니라 ‘책임감, 친밀함, 마을에 대한 애정’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들이 새롭게 나타났다.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된 집단적 행동은 마을활동의 맥락에서는 모임 또는 마을활동의 지속으로 구현되었다. 마을활동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사회적 학습은 지속적인 마을활동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마을활동을 분석한 결과, 마을활동은 모임 내에서, 모임 사이에서, 모임과 더 많은 주민 사이의 집단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모임을 지속하는 데 필요하거나 마을활동에 유용한 실천적 지식을 얻고 일정한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 수준의 학습이 아니라 집단적 수준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집단에 대한 애정과 신뢰, 열린 의사소통 구조가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이나 마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학습이 일어날 경우 이는 마을활동의 지속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_정책제언

### 1) 마을활동의 의미와 특성을 강조한 홍보 강화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마을활동 사례를 공모하는 포스터를 부착해 관련 홍보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특별한 누군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일상의 필요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지원사업의 홍보 포인트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마을활동은 사회 곳곳에 볼 수 있는 권위적인 문화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의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마을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시간 부족’을 들었는데 이는 가정과 직장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에너지, 때로는 주머니까지 털어서 마을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보람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활동의 방향은 모임 구성원이 함께 정하지만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적 운영방식이 참여자들에게 주민의식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을활동,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마을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마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결하고 싶은 절실한 과제나 문제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참여자들이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아이들 간식비’, ‘새로운 아파트단지 정착’, ‘주민 간의 갈등 줄이기’, ‘주거환경 개선’ 등이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제가 꼭 해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도모하기 어려운 주민도 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거나 가정과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만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도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마을활동에서도 취약계층이다. 매끼의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빈곤 노인이나 부부가 함께 일을 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벅찬 경우에는 마을일에 관심을 기울일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 마을활동의 취약계층은 사동 사례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물리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을 함께 도모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같은 접근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사동 사례에서와 같이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마을활동에 관심을 보일 경우에는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내용과 체계를 갖춘 지원서를 작성하고 매달 사업비를 회계시스템에서 정산하는 지원사업의 사업방식이 마을활동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다른 마을활동 취약계층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마을은 베드타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한 일을 함께 찾거나 마을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 이들에게는 ‘가’ 아파

트 사례에서와 같이 온라인 지역커뮤니티와 오프라인 마을활동 결합이 대안일 수 있다. 직장인에게 온라인 지역커뮤니티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고 마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모임이 오프라인 마을활동과 연계되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개 이상의 모임이 결합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온라인 지역모임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고광용, 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 서울·삶·사람」, 서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마을, 3년의 변화 그리고」, 서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유창복, 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서울: 휴머니스트.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Keen, M., Brown, V. A., and Dyball, R., 2005, Social learning in environmental management: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London: Earthscan.

Muro, M. and Jeffrey, P.,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social learning in participatory natural resource management proces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51(3), pp.325-344.

Parson, E. A., and Clark W. C., 1995, Sustainable Development as Social Learning: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Practical Challenges for the Design of a Research Program, in L. H. Gunderson, C. S. Holling and S. S. Light, eds., Barriers and Bridges to the Renewal of Ecosystems and Institu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als, A. E. J. & Leij, T. V. D., 2009, Introduction, in Wal, A.E.J. eds., Social learning towards a sustainable world, The Netherlands: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

Willemsen, M., Ochoa, J. B. and Almekinders, C., 2009, Multi-level social learning around local seed in Andean Ecuador, in Wal, A.E.J. eds., Social learning towards a sustainable world, The Netherlands: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

변창진·김경린(역), 2002, 「사회적 학습이론」, 한국학술정보, 파주(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손민호(역), 2010, 「상황학습: 합법적 주변 참여」, 강현출판사, 서울(Lave and Wenger, 1991, Situated Learning :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England] ;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

작은연구 좋은서울 15-16

사회적 학습 관점에서 본  
양천구 마을활동 분석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6년 3월 6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